

Drill #4. 공학대전, 과제전 및 졸업전시회 관람평

2021182032 임동건

이번 공학 대전 및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볼 수 있었는데, 특히 선배님들이 만든 게임들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습니다. 과제전에서도 여러 게임이 있었는데, 몇몇 게임들은 1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의 과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되었습니다. 졸업작품에서는 아직 잘 몰라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강했지만, 과제전에서는 과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.

대표적으로 체험해본 게임으로는 '버드벤처'와 'SilkRoad'라는 제목의 게임이 있었습니다. '버드벤처'는 새를 조종하는 게임인데, '쿠키런'처럼 아이템도 있고 스테이지를 도달하는 게임입니다. 땅에 부딪히면 튕기거나 조종하는 맛이 있었고, 난이도가 있어서 더 재미있었습니다. '실크로드' 게임은 4명에서 같이하는 멀티 게임으로, 어떤 행성에서 아이템을 먹고 약간 총을 쏘면서 협동해서 살아남는 게임이었습니다. 이것도 나름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.

이러한 졸업작품들이 퀄리티가 다 어느 정도 스팀 게임처럼 좋아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, 우수 작품 게임들은 퀄리티가 더 좋고 피드백 효과가 좋아서 더 몰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재미있었습니다. 아쉬웠던 점은 몇몇 작품들은 게임 플레이 타임이 길게 기획된 게임이 있어서 체험은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었기에 좀 아쉬웠고, 게임 소리를 들으면서 체험하지 못해서 몰입이 덜 되어서 아쉬웠습니다.

하지만 졸업작품들을 보면서 다양한 선배님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게임의 구현된 기술력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, 다양한 기술력이 들어간 것을 보며 나중에 나도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, 동기부여도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